다문화 청소년에 날개 달아준다

전북도, 글로벌 리더 육성 위한 국제교류 확대

美워싱턴주 연수생 2명 선발… 현지생활 지원

전북도가 도내 다문화청소년을 미래의 글로벌 리더로 키우기 위하여 국제교류에 발 벗고 나섰다.

도는 이중언어 '한국어'와 '아버지 또는 어머니 나라 언어'에 능숙한 다문화청소년의 국제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 워싱턴주(시애틀) 국제교류 연수생을 선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발된 2명의 청소년(父 한국, 母 필리핀)은 미국의 'Leota Junior High School'에서 2주간 수업에 참여하여 현지 학생들과 함께 미국의 생활, 문화,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 세계 굴지의 기업 견학과 대학 및 도서관 방문을 통해 학생들에게 미래의 꿈을 심어주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이번 국제교류 파트너인 '한인다문화회(회장 영브라운)'는 미국 워싱턴주 거주 국제결혼 한국여성들로 구성된 단체로서, 연수기간 동안 학생들의 교육, 숙식, 체험 등 체재비를 부담하고 현지생활을 도와준다.

영브라운 회장은 "외국인 200만 시대, 다문화가족을 '우리'로 받아들이는 사회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힘 있는 다문화리더가 나와야 한다는 취지로 이번 교류의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전북도에서는 왕복항공료를 지원하며, 현지에서 비상상황 발생을 대비하여 워싱턴주 파견관을 담당자로 지정하여 학생들의 안전을 관리를 책임진다.

또한, '전라북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협회(회장 박주철)'와 '한인다문화회'간 교류협약 체결을 통해 전라북도와 워싱턴주 민간 단체간의 교류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국제교류는 시범사업의 성격으로 소수에게만 기회가 주어졌지만, 앞으로 성과분석을 통해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강오 대외협력국장은 "연수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영어 실력이 뛰어나고 성격이 활달한 학생을 선발하였다고 말하며, 이 학생들이 이민자의 나라인 미국에서 '다문화'의 강점과 넓은 세상을 보고 배우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전라북도와 워싱턴 주정부는 이미 자매결연이 체결되어 있어, 이번 민간단체간의 교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민관이 함께하는 국제교류의 모범적인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신임 정무부지사 취임 16일 최정호 신임 전북도 정무부지사 취임식이 열린 가운데 전북도청 접견실에서 송하진도지사가 최정호 신임 정무부지사에게 임명장을 전하고 있다.

밀원수 단지조성 확대… 양봉농가 희소식

도-한국양봉협 MOU 체결 / 전업농가 생산비 절감 기대

전북도는 밀원 부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양봉 농가를 지원하고자 민선6기 도정공약사업 '밀원수단지 조성'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양봉농가, 전북도, 농촌진흥청 협치하에 한국양봉협회(전북지회)와 관련 단체 50여명 참석한 가운데 지난 10월 13일 산림환경연구소에서 MOU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 체결은 최근 이상기후, 밀원수 부족, 악성질병 발생에 따른 꿀벌 개체수 감소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봉농가의 고충을 해소하고, 산림산업과 양봉산업의 동반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전북도에서는 그동안 도유림 활용, 다양한 꿀을 채취 할 수 있는 밀원수종을 97ha(172천본)식재했으며 차후 밀원단지 확대조성을 위한 2017~2021년 5개년 중장기계획 수립하여, 동부산악권 청정 천혜고원지역(진안·장수)에 밀원수단지 250ha 확대조성 할 계획이다 고 밝혔다.

또한, 양봉산업은 인력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 감안, 동부산악권역 밀원 확대조성으로 정착·체류형유도할 것이며, 100군이상 전업농가수의 증가세는 뚜렷하며, 소규모 농가는 경영 악화 등 감소 추세로 전업농가당 평균 생산비(물류·체류) 5,600천원 절감 효과가 기대 된다.

동부산악권 광역단위 양봉조직화, 브랜드상품화 통합으로 벌꿀 유통혁신, 소비자 신뢰성 회복과 화분매개용 꿀벌농가 지원으로 임업·양봉·농산업이 함께 발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전북도에서는 채밀기간 양봉농가 숲사랑 지도원 위촉으로 산불, 산림훼손, 산림정화, 산림보호단속 등 숲사랑 활동을 전개할 것이며, 기 시설된 임도망(50.84km)을 개방하여 꿀벌생산 효율성을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송 하진 도지사는 "양 기관의 MOU 업무협약체결 기회로 산림산업과 양봉업계의 공동발전은 물론, 우리 산림의 활동 가치를 높여 지속가능한 임업·양봉산업 성공모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전북도 "고액 상습체납자 끝까지 추적"

2개월간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설정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도높은 징수 예고

전북도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10월18일부터 12월15일까지 2개월간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기로 하고, 10월17일 시군 세외수입과장 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7년6월3일부터 개정 시행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중요 사항을 전달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강화 방안도 토의할 예정이다.

또한 시군에서는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단을 구성 '체납징수 보고회 개최' 등 징수실태를 수시로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체납액 정리단은 현금 입출금기(ATM/CD), 위택스, 스마트폰 앱 등 고지서 없이도 세외수입 체납액 조회 및 납부할 수 있는 다양한 납부방법을 주민에게 홍보하여 자진납부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 독촉고지서 발송, 체납자 재산조회 등 징수활동을 강화하여 부동산, 차량, 예금, 급여 등 재산압류를 실시하고, 신용정보의 제공, 관허사업제한 등 행정제재를 강화한다.

또한, 오는 11월 8일에는 주정차위반 등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을 운영할 계획이다.

도 송규섭 세정과장은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징수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하여는 숨은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여,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과 조세정의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유망중소기업 22개소 인증서 수여

2017년도 전라북도 유망중소기업에 대한 인증서 수여식이 16일, 전북도 중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수여식에서는 22개 기업에게 인증서를 전달했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은 ㈜블루비즈, ㈜세우테크윈, ㈜아이엠시티, ㈜이엔이, ㈜미래솔라엘이디, ㈜우남기공, ㈜티엔지중공업, (유)효송그린푸드, ㈜경원상사, ㈜오켈케이블, 자연, ㈜효진산업, ㈜라이코, ㈜하이솔, ㈜대한유리공업, ㈜반석중공업, ㈜코리아터빈, ㈜아이엠, ㈜하다, ㈜그린파이프, ㈜하나엔텍, ㈜티엘론 등 22개 기업이다.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되면 강소기업 중견기업 성장 희망사다리 구축을 위해 인증기간 5년 동안 경영안전자금 대출시 5억원까지 이차보전 1%를 추가 지원하며, 해외시장 판로개척· 기술력 개발사업 등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그동안, 유망중소기업 선정사업을 통해 최근 5년간 인증기업 40개사에 경영안정자금 169억원을 이차보전 3%로 융자지원하여 19억정도의 자금을 추가 지원했다. /김진성 기자

"생명구하는 심폐소생술 숙지해야"

정호영 도의원, 교육활성화 조례안 발의

전북도의회 정호영 의원(김제·사진)이 16일 심정지 환자의 초기 생존율 향상을 위해 '전라북도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이 조례는 심정지 환자에 대한 초기 대응으로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을 수립한 뒤 교육이 필요한 도민이 적정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를 위해 심폐소생술 교육장 설치 및 전담인력 배치, 심폐소생술 교육 접근성 향상과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토록 하고 필요한 경비와 교육인력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정호영 의원은 "응급상황에서 심폐소생술은 생명을 구하는 중요한 응급처지로 평소 심폐소생술 방법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심폐소생술 교육에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전주매일신문 창간 8주년을 축하합니다

세상에 빛(안정적 전력공급)을,
이웃에 사랑(사회공헌활동)을 전합니다.

한국전력 부안지사
지사장 노경석

sj 진안군산림조합
조합장 전해석